



신부님의 설명대로라면 세례명을 바꿀 기회는 영영 없는 것입니까?

굳이 세례명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를 먼저 묻겠습니다. 혹여 세상에서 개명바람이 일고 있는 것처럼 세례명을 부유의 표지나 권력의 징표 또는 시련과 고통의 증거라도 되는 양 여기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는 까닭입니다. 이름 때문에 혹은 세례명 탓에 하는 일이 시원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 봅니다.

장담하건대 세례명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앞으로 더욱더 선을 행하기 위해서, 훨씬 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닐테니까요.

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유행이나 조류에 흔들릴 이유가 없으며 그러한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진정 모르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좋은 환경에다가 더 좋은 이름까지 없어주면 더 돈을 벌어서 더 평평거리면서 살아갈 것이라 여기며 더, 더, 더 주기 위해서 안달하는 세상으로 흘깃, 쏘리는 우리에게 하소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며 모든 인간의 하느님이다. 무엇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나?”(예레 32,27)고 분명히 이르시는 그분을 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름도 사주팔자도 별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세례명임에야 말할 나위가 없지요. 미련하고 우직하게 그분의 명령을 살아내는 일이 최고입니다. 이를 대대손손 가르치는 일이 주님을 감격시킵니다.

세례로 맺어진 주보성인께 더 강력한 믿음을 얻게 해 달라고 전구를 청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 대한 참된 정성

(시편 50,7-14.23)

시작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6장 ‘이끌어 주소서’ 1,2절까지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저희 마음을 열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50편 7절에서 14절, 23절을 읽어 주십시오.

- 50,7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나 너를 거슬러 증언하노라.
나는 하느님, 너의 하느님이다.
8 너의 제사 때문에 너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니
너의 번제야 늘 내 앞에 있다.
9 나는 네 집에 있는 수소도,
네 우리에 있는 숫염소도 받지 않는다.

- 10 숲 속의 모든 동물이며
수천 산들의 짐승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11 나는 산의 새들을 모두 안다.
들에서 움직이는 생물들도 내게 속한 것들이다.
12 나 비록 배고프다 하여도 네게 말하지 않으리니
누리와 그를 채운 것들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13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고
숫염소의 피를 마시기라도 한단 말이나?
14 하느님에게 찬양 제물을 바치고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네 서원을 채워 드려라.
23 찬양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이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 주리라.”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하루의 삶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일의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오는 생활의 변화를 나누어 봅시다.
- 주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피정이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나를 공경하는 사람”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행위들이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물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은 바로 내 의지의 결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의지의 선택이 드러내는 방식은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며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행동합니다. 생각과 행동의 요소들이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현실치료요법 원리 적용)

이러한 인간 행동의 수많은 원리 중에 생각과 행동은 우리 정서의 희노애락을 통해 드러납니다. 일상의 삶에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좋은 것이든 힘겨움을 안겨주는 것이든 오가는 정보들을 해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사랑으로 헌신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제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단연 우리가 선택하는 생각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실천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행동을 다르게 이해하여 타인이 나에게 비난과 모욕으로 다가오는 사건들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본인의 정당성과 억울함을 항변하고 타인의 비논리적인 언사를 공격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오로가 말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제일 처음으로 사도 바오로는 인내의 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인내의 덕의 구체적인 실천은 침묵의 행위입니다. 모함과 비난, 억울함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더 좋고 건강한 대처방식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성모님처럼 곰곰이 생각하는 침묵이라는 사랑의 행위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침묵은 성령의 하느님께서

나와 그 사람 안에 작용하시도록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침묵 중에 성령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도록 시간과 공간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생각과 행동으로서의 침묵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하느님께서 우리 사이에 현존하시도록 했기에 그 순간이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침묵의 행위 결과가 바로 사랑 안에 관계를 지켜가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96장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

- 석전동본당 구역분과장 지연숙(로사리아) -

석전동본당은 1991년 6월 28일 양덕동성당에서 분가하여 2016년에 본당설립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 신자들이 영입되었지만 인근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은 신자들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나 주택지에 위치한 저희 본당으로는 전입해오는 교우들이 많지 않다 보니 현재 미사 참례자 수가 설립 당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소공동체수도 과거에는 4개 구역 11개 반이었으나 현재는 3개 구역 6개 반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신부님께서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직접 모임에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소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친교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1구역 1반은 수호천사 놀이를 합니다. 반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뽑아, 그를 위해 기도하며 구역 내 냉담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듯 매달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니 반원들은 한 가족 같은 친분이 쌓여갑니다.

특히 3구역 1반은 주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 평일에 모임을 가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모임 장소 선정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장소를 제공

하고, 각 가정에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함께 나누며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 본당의 행사나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특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혼자 지내시는 분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분들의 안부를 묻고 편찮으시거나 힘든 일이 없는지 서로 챙기며 돌보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럴수록 석전동본당 소공동체는 하느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근원이시며 친교의 모범이신 삼위일체 하느님! 저희 석전동 본당의 모든 소공동체가 언제나 주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 우리가 모두 친교를 이루어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돌보아주소서.” 본당 주변 재개발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완공되면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오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소공동체 모임도 활성화될 것을 희망해 봅니다.

